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Vol. 10(1), 7~19(1999)

연구논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I

박순자 · 이은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The effect of the child-rearing patterns of mothers on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ark soon ja, Lee eun he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Ch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ffects of the mother's child-rearing patterns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with respects to 'understanding of family and work' area in Practical Arts Education related to the 7th revision on the Curriculum of the Elementary School.

The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survey. The subjects were 200 mother-child (total of 400) randomly chosen from 4 elementary school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averages, standard deviation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s and one-way ANOVA's using the SPSS/PC+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rrelation between income in their home and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did not analyze because of the omitting record in their questionnaire. The relations between the patterns of mother's child-rearing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by children's sex and by grade were examined. But in this study, these relations scarcely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ir mothers' child-rearing pattern except between being significant reject-sanctions type of mothers' child-rearing and th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the child-rearing patterns of mothers which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ink were similar, then the high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ir pattern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실과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았던 '가족과 일의 이해'의 영역에 가족 내용을 편제하여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실과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은 세 영역 즉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관리'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의 내용은 5학년의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서 (가) 가정생활의 중요성 (나) 가정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다) 생활계획과 실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1997). 따라서 가족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협동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초등 실과에서도 가족영역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과 초등학생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전세경, 1998).

더욱이 현대사회는 가치의 다양성이 전제되므

로 모든 가정에 공통되는 단일 목표를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는 가정교육의 목표와 방향설정에 있어 불분명하고, 가치기준의 상실로 권위와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모가 되면 자녀에 대한 교사로서 또한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떠맡게 되어 부모는 자신에게 부과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바른 의지와 신념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된다(지영숙, 이영호, 1996). 따라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의 양육태도와 교육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며, 자녀는 가족의 역할을 잘 알아 자신의 임무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가정생활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도 가족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박성연(1996)은 부모의 역할을 교육의 기능, 통제의 기능, 양육의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교육의 기능에서 부모는 아동의 관심이나 흥미에 같이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자발적인 흥미를 조장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단순한 지시자가 아니라 참여자나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모델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아동의 탐색욕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통제기능으로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통제하며, 책임감을 조장하여 자율적인 행동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지나 경고, 명령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로 아동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불신감이나 저항감을 기르는 대신, 제안적인 태도나 자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내적인 통제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양육의 기능에서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의 양육기능이 위의 두 가지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에게 풍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감정이입 능력이나 협동심 배양을 위한 다른 사람과의 대면적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책임이나 역할구분은 어느 한편에게 치우침이 없이 공동의 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관계에서 Simons 등(1992)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갖도록 격려하는 수용적인 태도와 가치는 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Fenger & Wood (1973)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머니의 가치가 아들, 딸 모두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딸이 부모가치에 더 순응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연옥(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와 학업성적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부모의 자율 및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적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는 학습시간과도 높은 상관이 있으며 학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학습시간의 양도 비교적 많아진다고 조사되었고, 간섭과 통제가 심한 부모일수록 학업성적에 대한 기대는 높으나 자율과 성취압력은 모두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기정(1984)과 유기섭(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이 수용성보다 학업성적이 더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성취압력은 성적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조계환(1991)의 연구에서는 자율성은 학업성적에 부적 상관을 보였고, 수용성만이 정적 상관을 보여 연구자에 따라, 또는 같은 연구에서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부모의 역할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인 증거면에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자녀의 발달단계 중에서도 아동기는 인지적인 면에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로 보아지고, 또제 7차 교육과정의 초등 실과에는 가족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초등 실과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시키거나 교육현장을 배경으로 한 가족관계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전세경, 199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실

시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초등 실과의 '가족' 영역과 관련지으면서 가족영역의 교육적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아동과 그 어머니로 선정하였고, 부모의 역할 중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까지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아동학적 입장에서 다룬 연구는 많이 있으나 이 관계를 아동교육이나 교육현장과 연결을 시도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교육학적 입장에서 접근해보려고 시도하였다. 부모의 역할 중에서 교육의 기능과 양육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두 기능이 관련된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연구항목으로 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교육의 관련성 즉,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태도의 상관성을 조사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로 조사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아동의 성별,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식대상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초등 실과 〔가족생활〕영역의 교육적 필요성

이 영역에 대한 교육적 의의는 기본적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가족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다.

〔가족생활〕영역은 가정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가정생활을 가족을 단위로 한 계속적인 집단적 생활의 영위라고 보았을 때, 가족의 구성이나 가족내의 역할분담, 권력구조 등의 가정생활 행동의 측면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아동의 위치에서 가족관계에서의 역할구조를 파악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들이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직면하고 있는 가정생활에서 가족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아동으로 하여금 아동이 그 공동체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사실과 그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전세경, 1998). 그러므로 책임감 있는 가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누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요구된다. 또한 자조 및 협동정신의 배양은 현대적인 가족구조상 가장 필요로 하는 정신이다(이연숙, 1997). 특히 가족관계에서 겪는 많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의 함양이 필요하며, 부모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할 필요성을 느낀다.

〔가족생활〕영역은 다면적이고 다양한 가정생활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여 내용을 체계화하고 가정생활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나 행동으로서 가족이 하는 일을 살피는 것은 가정생활의 여러 요소가 어떠한 일련의 상호관계를 갖고 있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전세경, 1998).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족에 대한 학습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므로 초등 실과에 가족영역이 포함된 것은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하겠다(한국교원대학교 실과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1997). 따라서 아동과 가족을 관련시킨 교육적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2.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발달특성과 관련변수 및 가족의 발달과업

아동기는 주로 학교에서 받는 집중적인 학습을

통하여 여러 면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부모나 교사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또는 주위의 성인이나 또래들에 의한 강화에 의해서 개성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다. 아동기는 Piaget의 용어로는 구체적 조작기로 인지발달에서 유목화 능력과 서열화 능력이 획득되며, 기억을 중진시키는 책략이 놀랄만큼 정교화된다. 또한 성격적으로는 勤勉性이 발달되는 시기로 근면성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열등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Erikson(1963)은 주장한다.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변수로서 성차가 나타난다. 자녀들은 가족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성역할에 대하여 기본적인 학습경험을 하게 된다. 여아는 어머니를 여성성의 본보기로하여 아동기 때부터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부인의 역할을 경험하게 되며, 남아는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공격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적인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5-8세가 되면 아동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Greta Fein et al., 1975; Schultz & Rodgers, 1985; 한국가족학회연구회편, 1994 재인용).

성별의 차이는 성취동기와 흥미, 여러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연구가 많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성별차이는 성취동기, 지적 성취에 대한 실패기대, 도덕적 전이양상의 차이 등이다. 대체로 남아는 여아에 비해서 성취동기가 높고(Walten & Margoly, 1951 : 유영주 외, 1998 재인용) 새로운 과제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신의 지적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Crandall, Katkowsky & Preston, 1962; 유영주 외, 1998 재인용), 여아는 남아보다 지적 성취에 더 관심을 보이며, 지적 실패에 대해서 자기를 비난한다(Cremetal, ;1962; 유영주, 이순형, 홍숙자, 1998 재인용).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여아와 남아는 사물을 분별하고 학습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공간 지각과 수리 물리 문제 해결능력에는 남아가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한편, 언어 과제에는 여아가 우수한 성취를 보인다고 하여 공간과제와 언어과제 사이에 성별 차이가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그런데 1989년도 미국내 성별간 학력차이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과제 영역별 성차는 인지능력의 차이가 아니며 아동이 자기에게 가지는 기대차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New York Times지는 밝혔다(유영주, 이순형, 홍숙자, 1998).

또한 부모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책임을 지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보호자로서, 동일시 대상으로서, 그리고 상담자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면서 자녀가 당면하는 문제에 따라 다양하게 대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유안진, 1987). 학동기 아동을 둔 가족은 아동의 발달과업 수행을 도와야 하는데, 아동의 숙제나 수업내용을 복습하는 것을 부모가 격려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또 학교생활에서 또래집단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사노동에도 아동을 포함시켜 가족이 분담해야 한다고 하였다(유영주, 이순형, 홍숙자, 1998).

어머니의 취업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질 때 가장 부정적인 결과는 아이에게 있다고 하는데, 많은 연구와 문헌 고찰(Glenna Spitze, 1988)들이 "현존하는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고용 그 자체가 어린이의 발달과 교육적 성과에 일관성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 딸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도 몇 가지 있으나, 아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Glenna Spitze, 1988 재인용).

가족의 붕괴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최근에 이혼한 가족의 아동이 다양한 부분(학교에서의 주의력 문제, 낮은 학업 성취, 퇴학, 의존성, 적대감)에서 뚜렷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났다. Kinard and Reinherz(1986, David & Acock, 1988, 재인용)는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게 되거나, 결혼의 붕괴가 학령전 아동보다 학령기 아동에게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족 구조에 인지적 기능과 연관된 인지적인 수행을 평가한 많은 연구들은, 가족 갈등과 붕괴가 억제된 인지적 기능과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Herzog와 Sudia (1973)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는 아버지 부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나 Shinn (1978)은 아버지의 부재가 아이의 지적 성취에 많은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David & Acock, 1988, 재인용).

3.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 (1949)로서 부모-자녀관계를 거부-보호, 지배-복종의 2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Schaefer (1959)는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도형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양육태도의 축, 즉 애정-敵意의 축과 자율-통제의 축으로 대별하여 분류하였다.

Becker (1964)는 부모특성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보호 대 무관심/거부로 표현되는 애정차원과 다른 하나는 과보호 대 독립성의 결여로 표현되는 통제차원이다. 공인숙 (1989)도 그와 유사하게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한 2가지 차원을 온정과 통제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부모의 온정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칭찬, 격려 등의 긍정적인 강화를 하는 것이고, 부모의 통제란 아동의 행동이나 내적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모가 사용하는 행동을 말한다.

Vicker & Monica (1990)와 Baumrind (1967)는 부모의 행동유형을 권위적, 민주적, 허용적으로 분류, 연구하였고, 황성하 (1996)는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적대적 태도, 통제적 척도, 안일한 태도로 분류하였으며, 김기정 (1984)은 양육태도를 자율-통제, 수용-거부 및 성취압력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및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희정, 1992). 과보호적 부모는 자녀들의 능력발달을 손상시키는 반면, 부모의 정서적 보호가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Rosenberg (1973)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했을 때 자녀들의 자존심 수준이 낮았음을 지적하여 부모는 아동의 자기 효능감 발달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박영애, 황옥경, 1997)고 하였다. 또 부모의 온정 ·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대인관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Putallaz & Heflin, 1990) 다른 양육요인들에 비해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해결능력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연구를 통해 확인되면서 아동의 부모와의 관계는 또래와의 적응적 혹은 부정적인 문제해결능력과 결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부모의 온정 ·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대안적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과 상관이 있는데, 자기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 ·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적대적 · 거부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더 많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애, 황옥경, 1997). 그리고 부모나 가족의 영향에 대한 남녀아동의 수용성 내지 민감성에는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아들보다 딸들이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여러 가지 부모의 양육태도 분류 유형 중에서 박영애 (1995)가 분류한 온정 · 수용형, 거부 · 제재형 및 허용 · 방임형의 유형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별 · 연령별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Simons 등 (1992)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갖도록 격려하는 수용적인 태도와 가치는 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업성적과의 정적인 상관은 아들에게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였고, 자녀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훈련의 가치는 청소년 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머니의 가치가 아들, 딸 모두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딸이 부모가치에 더 순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nger & Wood, 1973). 여기서 가치는 독립성, 순종, 협동심, 자존심, 탐구성, 책임감, 성취 등을 포함하므로 성적과도 관련이 있다.

Brookover, Erickson, Joiner(1967)는 부모로부터의 인정에서 성차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는데 남아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여아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기 가정에 대한 긍지와 긍정적인 개념, 자아개념도 가져 간접적으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적과의 관계를 성별로 비교해 보고 성차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연령별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Simons(1992)는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통제 및 훈련의 가치는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기정(1984)은 양육태도 중에서 자율적 요인이 수동적 요인보다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섭(1987)의 연구에서는 6학년 여학생의 경우는 자율적인 행동이 성적과 상당히 높은 정의 상관을 보여, 자율을 허용하는 부모의 태도와 자녀들의 성적과의 관계는 위에 든 연구결과들만으로는 일관성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적에 영향이 크게 미친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학년 중에서 최고학년이면서 본 설문지 문항에 답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지는 3학년생과 고학년 중에서 최고학년인 6학년생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연령차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생과 6학년생으로 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초등실과 "가족과 일의 영역"과 관련한 것이며 대상을 3학년과 6학년으로 선정한 것은 본 설문지에 응답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지는 저학년 중에서 최고학년인 3학년생과 고학년 중에서 최고학년인 6학년생이면서, 현행 초등실과를 이수하고 있는 최저학년과 최고학년이기도 한 두 학년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려는 의도에서이다.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은 1998년 6월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 각각 30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업시간 후 직접 조사방법을 통하여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은 박영애(1995)의 연구에서 이미 신뢰도 검증을 거쳐 만든 항목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사용했으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토대로 1998년 7월초부터 2주간에 걸쳐 서울 소재 초등학교 4개교에 재학중인 남·여 아동 202명과 그 어머니 총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답한 것을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400명을 통계처리하였다.

2.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박성연(1990)과 이숙(1991)이 개발하여 타당도 연구를 거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참고로 하고, Schaefer(1965)의 차원론적 개념체계와 접근방식 및 하위척도를 종합하여 선택한 문항으로 하였다. 초등학생과 어머니 자신이 인식하는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의 설문지 문항은 박영애(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온정·수용형, 거부·제재형, 허용·방임형 문항 중에서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문항을 각각 13개씩 선택하여 아동용 39문항 및 어머니용 39문항 총 7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에 따른 문항은 Likert type의 4단계 평정척도로 '아주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아주 다르다'로 구분하여 1점에서 4점까지 각각 점수를 주어 각 문항의 점수 합계로 높고 낮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아동이 학교에서 얻은 학업성적으로 측정하였고, 한 학기 동안 얻은 성적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면서 대표적인 과목으로, 아동의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된 언어영역인 국어와 수리영역인 수학성적만을 종합평균하여 상, 중, 하의 3단계로 평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N)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초등학생과 어머니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과 성별, 학년별, 성적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집단간의 유의차는 t-test,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차는 $p<.05$이하에서 검증되었다. 또한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간의 평균, 표준편차, 최고치, 최소치를 구하고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의 유형과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의 유형간의 상호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 아동은 남아가 97명(48.5%), 여아가 103명(51.5%)으로, 학년별로는 3학년이 106명(53.0%), 6학년이 94명(47.0%)이었다. 어머니 연령은 31세에서 40세 사이가 7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1세에서 50세 사이가 26.0%, 30세 이하가 3.5%, 51세 이상이 1명(0.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4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26.5%), 중졸(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은 31.5%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가 2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응답인 경우가 39.0%로 나타난 것과 100만원 미만이 14.0%, 300만원 이상이 12.0%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응답을 기피하거나 소득면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내용 중에서 특히 학력과 월소득에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는 이유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조사대상이 서울특별시에서도 강동구 1개교 한 학급, 서초구 1개교 두 학급, 중랑구 1개교 두 학급 및 동대문구 1개교 한 학급으로 지역적인 분포가 다양하므로 거주지에 따른 생활환경이 학력과 가정의 소득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질문지의 응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N(%)
학생의 성별	남	97(48.5)
	녀	103(51.5)
학생의 학년	3학년	106(53.0)
	6학년	94(47.0)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7(3.5)
	31-40세	140(70.0)
	41-50세	52(26.0)
	51세 이상	1(0.5)
어머니 학력	국 졸	6(3.0)
	중 졸	25(12.5)
	고 졸	96(48.0)
	전문대졸	6(3.0)
	대 졸	53(26.5)
	대 학 원	4(2.0)
	무 응 답	10(5.0)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28(14.0)
	100-199만원	41(20.5)
	200-299만원	29(14.5)
	300만원 이상	24(12.0)
	무 응 답	78(39.0)
합 계		200(100.0)

보아진다. 그래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소득을 추출하여 그 관련성을 분석해 보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이 많아 그 관계를 분석할 수 없었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의 아동의 성별, 학년별에 따른 차이

아동의 성별, 학년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의 차이는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Brookover, Erickson, Joiner(1967)는 부모로부터의 인정에서 성차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에서 남아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여아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기 가정에 대한 긍지와 긍정적인 개념, 자아개념도 가져 간접적으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성차를 고려

〈표 2〉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의 차이 검증

양육태도 유형	아동 인식									어머니 인식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성별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남	41.82	6.98	-1.64	28.12	8.10	1.87	24.02	4.66	-0.59	42.53	5.30	-1.00	26.54	6.51	-0.36	24.02	4.66	-1.67
여	43.32	5.86		25.98	8.08		25.24	5.55		43.29	5.33		26.98	6.39		25.24	5.55	

〈표 3〉 학년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의 차이 검증

양육태도 유형	아동 인식									어머니 인식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학년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3	42.23	6.74	0.06	27.12	8.54	0.55	24.90	5.91	0.38	42.61	5.30	-1.77	25.73	6.47	0.07	24.23	4.64	0.63
6	42.00	7.34		24.75	2.87		23.75	5.50		47.50	7.72		25.50	8.34		22.75	3.59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적과의 관계를 성별로 비교해 보았으나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3〉의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비교한 것으로 3학년과 6학년 공통적으로 아동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온정·수용형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거부·제재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거부·제재형과 허용·방임형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Simons(1992)는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통제 및 훈련의 가치는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기정(1984)은 양육태도 중에서 자율적 요인과 수동적 요인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자율적 : r=.26, 수동적 : r=.14)이 중학생(자율적 : r=.20, 수동적 : r=.005)보다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비교로 선행연구와는 대상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들 연구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거부·제재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와 유의차를 보였고, 나머지 양육태도에서는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김기정(1984)은 양육태도 중에서 자율적 요인이 수동적 요인보다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고, 유기섭(1987)의 연구에서는 6학년 여학생의 경우는 자율적인 행동이 성적과 상당히 높은 정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율을 허용하는 부모의 태도와 자녀들의 성적과의 관계는 위에 든 연구결과들만으로는 일관성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적에 영향이 크게 미친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학년생과 6학년생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연령차를 살펴보았으나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과의 관계에서는 거부·제재형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다른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동의 성적을 종래의 점수화된 객관적 평가를 하던 것에서 벗어나 3단계(상, 중, 하) 및 서술식의 주관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평가방법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적평가 방법이 달라진 것에 부응하여 분석방법도 다양하게 연구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문제만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라는 항목에 연구의 비중을 둔 것은 어머니들이 교육에서 성적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평가방식이 바뀐 현재에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계속 성적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런 자세가 초등학교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던 것이다.

〈 표 4 〉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차이 검증

양육태도 유형 / 학업성취도	아동 인식									어머니 인식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학업성취도	42.95	6.45	1.20	27.02	8.14	1.94*	24.99	6.19	1.03	42.92	5.32	0.81	26.82	6.44	0.78	24.65	5.16	1.51

*$p<.05$

4. 인식대상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간 관계

〈 표 5 〉는 어머니 양육태도 변인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최고치, 최소치를 나타낸 것이다. 온정·수용형에서 아동이 인식하는 점수의 평균치와 어머니가 인식하는 점수의 평균치가 각각 42.65, 4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부·제재형은 26.95와 26.76, 허용·방임형은 각각 24.99, 24.64로 낮게 나타나, 온정·수용형이 다른 유형과 달리 가장 많았다. 이같은 결과에서 초등학생과 그들의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은 온정·수용형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양육태도 유형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이 인식하는 대상에 따라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 표 6 〉에 제시하였다.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온정·수용형은 $p<.01$수준에서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온정·수용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거부·제재형은 역시 $p<.01$수준에서 어머니의 거부·제재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허용·방임형도 어머니가 인식하는 허용·방임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동이 인식하는 온정·수용형과 어머니

〈 표 5 〉 어머니 양육태도 변인에 대한 인식대상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최고치, 최소치

양육태도변인 \ 구분		평 균	표준편차	최고치	최소치
아 동 인 식	온정 · 수용	42.65	6.46	52	23
	거부 · 제재	26.95	8.15	52	13
	허용 · 방임	24.99	6.16	48	7
어머니 인 식	온정 · 수용	42.98	5.33	52	30
	거부 · 제재	26.76	6.43	43	13
	허용 · 방임	24.64	5.14	45	12

〈 표 6 〉 어머니 양육태도 변인과의 상관관계

양육태도유형		학생 인식			어머니 인식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학 생 인 식	온정·수용	1.00	−.274**	.044	.451**	−.245**	−.071
	거부·제재		1.00	.071	−.341**	.382**	.118
	허용·방임			1.00	.044	.071	.182**
어머니 인 식	온정·수용				1.00	−.581**	−.140*
	거부·제재					1.00	.245**
	허용·방임						1.00

*p〈.05 **p〈.01

가 인식하고 있는 거부 · 제재형과는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과 어머니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양육태도 유형과는 거의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V. 결론 및 제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실과의 내용을 구성하는 세 영역 중에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이 편제되어 초등 실과에서도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의 역할과 의무, 권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모의 역할과 초등학생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 실과 '가족' 영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 접근해 보았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아동의 성별, 학년별에 따른 차이,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3. 인식대상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1998년 7월초부터 2주간이며,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 4개교에 재학중인 남 · 여 아동 202명과 그 어머니 총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회수된 질문지 중 최종적으로 400명을 통계처리 하였다.

초등학생과 어머니 자신이 인식하는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은 온정 · 수용형, 거부 · 제재형, 허

용 · 방임형 각각 13문항으로 아동용 39문항 및 어머니용 39문항 총 78문항을 사용하였다. 양육태도 각 변인에 따른 문항은 Likert type의 4단계 평정척도로 '아주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아주 다르다'로 구분하여 1점에서 4점까지 각각 점수를 주어 각 문항의 점수 합계로 분석하였다.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학교에서 얻은 학업성적으로 측정하였고, 한 학기 동안 얻은 성적 중에서 성별 차이가 보고된 언어영역인 국어와 수리영역인 수학성적만을 종합, 평균하여 상, 중, 하의 3단계로 평가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N)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초등학생과 어머니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과 성별, 학년별, 성적과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고, 집단간의 유의차는 t-test,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유형간의 상호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한 가정의 월소득과 아동의 성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무응답이 많아서 불가능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아동의 성별 및 학년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이 인식하는 거부 · 제재형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4. 아동과 어머니가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은 온정 · 수용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과 어머니 자신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유형과는 높은 일치성을 보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몇가지 제안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성실한 응답이 부족하여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항목에서는 무응답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것이 결과처리에도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아진다. 또한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보는 항목에서, 성적처리 방식이 종래와는 달라 분석하는 데도 애로가 있었으며, 예상했던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성적을 변수로 연구할 경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 등 성적에 대한 다양한 분석방법이 개발,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 점은 앞으로의 학업성취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 실과 내용의 3개 영역 중에서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이 새로 편제되었고 이 내용이 초등 5, 6학년에서뿐만 아니라 중등 7~10학년까지 연계되므로 초등 실과 연구에서도 아동의 교육내용과 연결되는 교육현장의 연구가 가족관계 영역에서도 활성화되도록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행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앞으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는 부모의 역할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밖의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동과 가족관계를 연구해 나가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공인숙, 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학회지, 10(1), 64-77.

교육부, 1997,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 해설, 28-29.

김기정, 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연옥, 1992-1993, 학습시간 지능지수 학습동기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敎

育論叢, 9-10, 277-292.
박성연, 1996, 정보화사회의 부모역할, 아동학회지, 춘계학술대회, 159-170.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59-182.
박영애, 황옥경, 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지지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225-237.
우희정, 1992, 아동의 자기 효능감 발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5-25.
유기섭, 1987, 선정된 개인적 환경적 변인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제4호, 1-18.
유안진, 1987, 인간발달신강, 문음사, 329-340.
유영주, 이순형, 홍숙자, 1998, 가족발달학, 교문사, 202-213.
이숙, 199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89-201.
이연숙, 1997, 가정과 교수법, 신광출판사, 83.
전세경, 1998, 실과교과에서의 〔가족생활〕영역의 교육을 위한 時論(Ⅰ),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1(2), 15-28.
조계환, 1991, 자아개념, 귀인성향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 및 이변인들간의 상호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영숙, 이영호,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건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996, 7-91
한국가족학회편, 1994, 가족학, 하우, 215-220.
한국교원대학교 실과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1997, 〔제 7차 실과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1997년도 교육부 위탁 연구과제 답신 보고서, 125.
황성하, 1996, 부모의 자녀간과 양육태도가 자녀 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2), 207-219.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ghs, 75, 43－88.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cipline, In M. L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 1; New York : Rusell Sage Foundation.
Brookover, Erickson, Joiner, L. M (1967),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Ⅲ (Final Re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1831), East Lansing, Michigan : Michigan State University, pp107－109.
David h. Demo, Alan C. 1988, Acock,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 of Marraige and the Family, 50, 619－648.
Erikson, E. L.,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Brookover, W. B, Erikson, E. L., & Joiner, L. M. (1967),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Ⅲ (Final Re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1831), Michigan : Michigan State Universiry.
Fenger, A. P. & Wood, V., 1973, Contiuity between the generation : Differential influence of mothers and fathers. Youth and Society 4, 359－371.
Glenna Spitze, 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 : A Review, J. of Marraige and the Family, 50, 619－648.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 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89－216).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73,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6, 829 - 860.

Schaefer,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 - 235.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2, Gender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belief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 823 - 836.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 Y. : Bureau of Public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Viktor Gecas, Monica A. Seff, 1990, Families and Adolescents :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erriage and the Family 52 (November), 941 - 958.